6. 유대 지도자들과의 분쟁 I (2:1-3:6)

들어가면서—역사적(historical), 문학적(literary), 신학적(theological) 접근에 관하여
- theological—doing theology, not enforcing dogmatics=> questioning/challenging, not memorizing (conforming to) a dominant ideology/theology/philosophy/value/gospel
- 성서의 사건/경험=> 재현. 왜? 살아내야 하니까 (일반 문학과 성서의 차이점); 어떻게? (해석하기, 신학하기의 필요성)
- 독자도 마가복음의 (숨은) "등장인물"—관객. 독자만큼 마가복음의 줄거리(plot)를 아는 등장인물은 없다.
- 줄거리.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로마 지배하에 있는 갈릴리에서 펼치려고 한다. 여기에 지배세력의 거센 반발을 받아 분쟁(conflict)이 일어나며, 위로는 지배 세력("더러운 영")으로부터 가족(3 장), 이웃(6 장), 제자(15 장)에게 이른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처형으로 생을 마감. 남은 질문: 이것으로 끝인가? (갈릴리로 가라!)

I. 유대지도자들과의 분쟁—지배제도/"권세"와의 대립
- 막 2:1-12 중풍병자를 고침—죄/빚/채무 제도에 도전 (sin and forgiveness)
- 막 2:13-17 Table Fellowship—사회 생활의 근간 (exclusion and acceptance)
- 막 2:18-22 Public Piety—feasting, not fasting/(not-eating)
- 막 2:23-28 안식일 준수 (eating the bread: "떡" => 21 번)
- 막 3:1-6 All of the above—안식일에 병 고침

	Crowd/Jesus	Leaders/Scribes
room	no room (v. 2)—standing room only	sitting (v. 6)
forgiveness	by God—divine passive form "Your sins are forgiven"	assumed Jesus to have uttered blasphemy (v. 7)
place of forgiveness	in a village—anywhere	temple and sacrificial system
power to pronounce forgiveness	Jesus also has power to pronounce God's forgiveness—by extension, ANYONE	Only the priests have power to confer God's forgiveness
theological tradition	Elijah/Elisha (Northern)—Galilee "little tradition" (James Scott)	Priestly (Southern)—Jerusalem "great tradition"
whose interest?	peasants of Galilee	temple and the priests
Patron-client	God-Jesus-people	Rome/Emperor-priests-people
function	forming new covenant communi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response	Glorified God	silenced

A.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your sins are forgiven);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to have authority to forgive sins) ☞ "죄 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 (to have authority to pronounce the forgiveness of sins). 삼상 1:17; 삼하 12:13
- 막 2:7b--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도 예수도 하느님의 권리/능력에 논쟁의 초점을 두지 않음. Who cares, anyway?
  - 바리새파의 논점: 하느님의 권리를 수호한다기 보다, 현 사회제도를 고수하려는 노력.
  - 예수의 논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권리에 초점. cf. "우리가 우리에게 죄/빚 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알아 듣기) 쉽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혹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 두 개의 표현은 같은 말 => 일어나 걸음 (인간성 회복)이 곧 죄로부터 벗어남 (cf. "회개의 세례")
  - "그러나...."=> [당연히 후자의, 일상의 말이 쉬우나] 인자(人子=> 2:27-28, 사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사람이/우리 모두가 서로 죄/빚을 사할 권리/권세가 있음을—상기시킴.

  - 병은 죄의 결과. 고로 원인치료=> 죄 용서. [초점은 병고침이 아닌, 체제와의 대립]
- 결과. 중풍병자가 들려 왔지만(αἰρόμενον=> 운명, 속박 =>막 10:51), 이제는 침상을 들고(ἆρας) 나가다=> 지배체제의 피해자였지만 (비관적 운명론) 이제는 주관적 삶을 영위 (창조적 능동적)
  - 병은 죄의 결과. 고로 원인치료=> 죄 용서. [초점은 병고침이 아닌, 체제와의 대립]
  - [늘] 일어나(현재형, ἔγειρε) 네 상을 [단번에] 가지고(단순과거형, ἆρον) 집으로 [항상] 가라(현재형, ὕπαγε) 하시니 => 일시적 병고침("기적")이 아닌, 계속된 투쟁 (삶의 태도)
  -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 단지 또 하나의 기적행위라면, 항시 있어 왔던 일/사건/경험 (막 1:32-34). 죄(제도적 피해)와 현상과의 관계
- 죄명: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blasphemy)=>2:7=>14:64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어떤 그리스도?). 신성모독은 "인간으로서 하느님 행세를 하는 것" (요 10:33). 마가복음에서 초점/관심은 성결법 침해=> holiness (wholeness, separation). 제사장(성직자)/일반인 구분 (밥그릇 싸움)

B. "빵"—밥상 공동체 (dispute over table fellowship)
- 복음서에만 약 80 번 (마 21; 막 21; 눅 15; 요 22); 기타 신약성서에 16 번
  - 초기 교회의 밥상공동체 모습
  -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 누구의 집? (눅 5:29=> 레위의 집)
  - 또한, 마가복음의 신학하기 구조 속에서 "빵"은 말씀과 신학
- 세리와 죄인=> 마가공동체의 모습을 그림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인/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임)
  - 레위는 소위 12 제자에 들지 않는 이름 (막 3:16-19). 마 9:9, 레위를 마태로 (cf. 마 10:3).
  -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신학 다시하기 (지배체제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함.)
  - 건강한 자와 의원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예수를 적대관계로 해석함은 무리 (그래서, 의인을 위선자와 같이 해석). 다만, 병든자/죄인이란 기존 체제/제도 속에서 "구원"(의원/예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
- 미리 읽기. 막 7:5,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 빵(토라)을 씻지 않은 손으로(부정한 자가) 먹을 수 있나(해석할 수 있나)

C.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신학 다시하기
- 요한, 바리새인들의 금식—전통적 종교의식 (근데~~, 먹을 것이 있어야 금식도 하지...)
- 포도주(신학), 부대(신학의 틀)=> 신학하기의 새로운 틀 (기존의 틀—인격신--에서 말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 => 찢어짐, 해짐(σχίσμα, 2:21=>15:38)
- 계급 철폐(2:13-17)—열린 밥상 공동체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2:27-28)=>제사장 신학(창 2:2, P) vs. 신명기 신학(신 5:12-15 <<출 20:8-11)

D. 안식일에 병까지 고친다고라??? 그 결과... (막 3:6—"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 왜? 이쁜 예수를? (진짜로?) ☞ 예수의 대적자—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로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는 "복음"의 참 의미를 놓치기 쉽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 안식일에, 회당에서? (참조. 막 1:29f—회당을 나와 조용히/얌전히 고칠 수도 있었는데...) 혹은 몇 시간 참을 수도 있었는데.. (1:32, "저물어, 해 질 때에"—개역한글)
- 손 마름(ἐξηραμμένην)=>무화과 나무(성전)의 마름(ἐξηραμμένην)=>지배체제의 피해자, 지배체제 타파
- 마음(καρδία, 생각)의 완악함/굳어짐/완고함 (막 3:5) ☞ 막 6:52; 8:17 (신학/철학/신앙생활 이야기)
- 문제는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는가라기 보다는 그 권세의 원천(1:27; 11:28-33)이다.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다! (지금은 안 일어나는 사건)

-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그를 십자가(처형=>정치범, 반역죄; 강도와 함께)로 몰고 갔다. 처음부터!!

신학 다시 하기

- 병고침의 의미. 1) 신적 능력, 역사에 유일한 사건이면, 지금은 효력상실=>신의 능력 소진(消盡). 2)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으로 폐기해야한다면, 역시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나 3) 지금도 살아있는/영향을 끼친다면(functional equivalents), 우리의 말로 재생되어야 함. =>병과 귀신들림 그리고 고침/회복은 제국주의 상황에서 자의식, 신학의 재발견=>피해 망상에서 벗어남 (왜 그 때에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어야 할까? 지금은 없나?)
- Distinction between illness (아픔, 고통) and disease(질병)
  - disease—a physical sickness; illness—represents the social consequences of disease, e.g., isolation, dependency, begging, etc. (God's judgment?, cf. John 9:2)
  - "Illness in antiquity was a social as well as a physical phenomenon. A person with a disease or deformity was socially as well as physically abnormal. Healing therefore required reestablishing relationships as well as restoring physical health." (Malina and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363.)
  - Implication. Healing is not so much curing diseases as restoring paralyzed lives in a society of oppression and injustice.